

許筠의 江原道 辭賦文學으로 본 辭賦의 要件*

— 東征賦·思舊賦·竹樓賦의 형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

金星洙**

<目次>

I. 序論	4. 解命文
II. 本論	5. 對詰者
1. 東征賦	6. 遣加林神
2. 思舊賦	III. 結論
3. 竹樓賦	

<국문 초록>

작품 수로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질적으로는 허균은 한국 사부문학을 대표하는 辭賦家이다. 그의 작품 14편 중에 3편이 강원도에서 지어졌다는 사실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3편의 작품을 가지고 사부의 형식적 요건을 귀납한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무작위로 표집된 3편에서 그것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각 작품은 3단 구성, 다양한 字句, 押韻의 구사 등을 고루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얻어진 3가지 형식적 요소는 사부를 규정지을 수 있는 일반적 기준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직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에서 이 작업은

* 이 논문은 원래 2011년 1월8일에 열린 漢文古典學會에서 발표된 내용을 논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kimss@kongju.ac.kr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사부로 여겨지지 않았던 許筠의 숨겨진 작품 3편을 들어 같은 방법으로 그것이 사부임을 입증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유감스러운 일은 형식적 요건의 추출에 치우쳐 작품의 내용적 면모에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허균의 사부문학, 사부의 형식요건, 3단 구성, 字句, 押韻

I. 序論

許筠이 한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뚜렷한 위치에 대해서 異論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글 소설 『홍길동전』은 물론이거니와, 漢文學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혁혁한 자취를 남겼으며, 특히 그의 文學批評論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문학계가 그렇듯이 그의 辭賦 문학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¹⁾ 작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작자 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겠고, 작자 연구에 있어 또한 작품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작품은 가급적 그의 모든 것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허균의 문학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갈래와 같이 당연히 그의 사부문학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는 굴지의 한국 사부문학의 大家요, 그가 남긴 문학에서 사부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許筠은 江原道와 인연이 적지 않았다. 그의 外家인 江陵에서 태어났고, 낙향하여 한거한 적이 있었으며, 석 달에 불과했지만 三陟府使도 지냈던 까닭이다. 벼슬살이 외에도 外家の 연고로 인하여 강원도는 문학적으로 낯선 곳이 아니어서 여러 갈래의 작품에 다양하게 강원도가 작

1) 許筠의 사부문학에 대해서는 拙稿, 「許筠의 辭賦文學」, 『인문과학연구』 13집, 공주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8.을 참고할 수 있음.

품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辭賦로만 따져보아도 그의 사부 14편 중 강원도에서 지어진 작품이 3편이나 되니 그가 서울 사람인 점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특히 「東征賦」는 金剛山 勝景遊覽記로, 鄭澈의 「關東別曲」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關東遊覽記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이 둘 사이의 인연은 비단 지역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인연에서도 매우 특별하다. 歌辭와 辭賦는 同宗의 갈래이고,²⁾ 鄭澈과 許筠은 私淑의 관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 「思舊賦」와 「竹樓賦」는 허균이 삼척부사로 있던 때에 지어진 작품이니 그 배경은 삼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東征賦」와는 달리 그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다. 감상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부문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아직 미미하니 모든 사부문학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는 그 개념, 정의마저 분명치 않은 실정에서 사부문학을 요령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상론할 겨를이 없으므로 사부를 가장 간단히 말하면 ‘운문과 산문, 그리고 서정과 서사의 장르적 성격을 겸비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문학으로 말하면 歌辭 문학과 아주 비슷한데 한문학에서는 歌辭보다 그 문학적 비중이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은 그 특유의 장르적 兩面性和 模糊性으로 해서 장르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경계를 갖는데 구태여 장르적 체계로 말하면 ‘教述’개념에 가깝다. 그러나 이른바 教述이라는 장르 자체가 剩

-
- 2) 同宗의 갈래라고 하는 것은 辭賦와 歌辭를 같은 教述 장르라고 보기 때문이다.
 - 3) 許筠, 『惺所覆頤稿』 卷25, 『惺叟詩話』, “鄭松江善作俗謳 其思美人曲及勸酒辭 具清壯可聽 雖異論者斥之爲邪 而文采風流 亦不可掩 比比有惜之者 汝章過其墓 作詩曰 空山木落蕭蕭 (中略) 昔年歌曲卽今朝 子敏江上聞歌 詩曰 江頭誰唱美人辭 (中略) 二詩皆爲其歌而發也.”; 『惺翁識小錄』 下, “松江關東別曲所稱 比屋可封者 殆非虛語也” 이런 기록들을 보면 허균이 鄭松江을 개인적으로 흠모하였고, 그의 歌辭 문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東征賦」는 송강의 「關東別曲」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餘處理的인 성격이 강하여⁴⁾ 막상 문학 각론에 가서는 적잖은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문학에서 歌辭가 겪는 장르적 애매성과 동일하여 비교문학적인 연구방법이 절실하다.⁵⁾

사부문학에 대한 개념, 규정의 혼란은 곧 사부문학 연구의 혼란과 같으니 정상적인 사부문학 연구를 위해서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부문학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한데 앞에서 언급된 ‘抒情과 敘事를 兼備’한 것으로 이를 대신하기에는 지나치게 막연하고 광범위하여 요령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문학의 장르를 규정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⁶⁾ 이를 위해서 그 대안으로 여기에서는 사부문학의 형식적 요건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장르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글의 형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부의 형식적 요건을 類目化해서 단정적으로 지적해 내기도 쉽지 않다. 사부는 형식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아직도 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
- 4) 教述은 서구의 장르 체제에서 抒情, 敘事, 劇과 함께 근래 제4의 장르로 굳어진 듯하다. 그러나 教述 그 자신이 독자적인 갈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마땅히 기존의 3대 장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여 이러한 성격을 갖는 일련의 글들을 묶어 教述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한 혐의가 짙다. 이에 대하여 趙東一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지배적인 설득력은 없는 듯하다. 오히려 국문학 장르론을 더 큰 혼란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말할 것 없이 歌辭나 辭賦와 같이 ‘서정-서사, 객관적-주관적, 운문-산문 등의 양면성, 모호성을 갖는 문학’을 教述 장르로 설명하면 가장 알기 쉽지 않은가 한다. 결국 教述이란 기존의 체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글들을 묶어 편의적으로 剩餘處理한 것으로 본다. ‘剩餘的’이란 미처 적절하게 정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본래 뚜렷한 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다.
- 5) 사부문학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拙著, 『辭賦文學 研究』,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7.를 참고할 수 있음.
- 6) 서구의 문학 장르 구분의 기준이 내용적인 면에 관점을 두었다면, 중국의 경우는 형식적인 면에 기준을 두었다. 따라서 한문학의 장르는 내면보다는 외부적 형식에 구분의 기준을 두어야 타당하다.

못한 이유이다. 비록 이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부문학의 정상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어차피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江原道에서 지어진 許筠의 사부 작품 3편을 들어 사부의 요건을 귀납해내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이다. 혹은 작품 선정 기준의 유연성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무작위의 표집이 오히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辭賦의 개념, 정의가 바르게 서지 못한 현실은 당장 許筠의 사부문학을 논의하는 데 애로가 있다. 그의 작품 중에서 「解命文」, 「對詰者」, 「遣加林神」은 그의 문집에서부터 辭賦편이 아니라 雜著편에 실려 있다. 당시에 이들 雜文 정도로 취급했으니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辭賦로 논의하기 쉽지 않다. 아직도 잠재적으로 사부의 규정을 작품의 제목이 ‘辭’나 ‘賦’로 되어있느냐로 삼고 있는 실정에서 이 세 작품은 사부로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보다는 이들을 論說, 議論, 隨筆로 논의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 결과로는 이들은 사부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니 사부문학으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이들이 사부임을 밝히는 것은 本題의 부수입이겠지만 이를 통하여 한층 분명하게 본체의 論旨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연구의 목적이 이에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줄이지만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허균의 사부 작품은 이 세 편을 더하여 모두 14편으로 해야 마땅하다.⁷⁾

이러한 의미에서 漢文學界의 巨擘으로, 辭賦문학의 大家로서의 許筠

7) 『惺所覆瓿藁』 賦향에 실려 있는 허균의 사부작품은 「東征賦」, 「思舊賦」, 「竹樓賦」, 「北歸賦」, 「夢遊練光亭賦」, 「東林城賦」, 「次別知賦寄弔詭石洲之友」, 「夢歸賦」, 「續靜姬賦」, 「毀壁辭」, 「次陶元亮歸去來辭」 등 11편이다. 그러나 이는 제목이 辭나 賦로 되어 있는 것만 골라 실은 것이다. 편찬 당시 아직 사부에 대한 장르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지금도 답습해서는 안 된다. 雜篇에 실려 있는 대로 「解明文」, 「對詰者」, 「遣加林神」을 그대로 방치하면 본래 어엿한 辭賦였던 이들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허균의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江原道에서 지어낸 3편의 辭賦를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II. 本論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許筠이 江原道에서 지은 辭賦 작품 3편을 들어 그 형태적 특징을 추출해내고자 한다. 작품을 인용할 때 전체의 구조를 序 - 本 - 結 3단계로 보아 각 단계마다 줄을 한 간 띄어서 배열하였다. 字句의 배열은 필자 나름대로 파악한 문맥의 의미에 따라 行을 나누었다. 그러나 의미에 따라 배열하였기 때문에 필자의 임의가 아니라 작자의 의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부는 산문과는 달리 行의 배열이 작품의 감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는 사부가 매우 짙은 운문성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漢文의 韻文은 押韻을 수반하기 마련이고, 이는 중요한 운문의 형식미이다. 따라서 작품의 押韻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사부는 漢詩와는 달리 押韻이 일률적이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押韻을 안할 수도 있고, 缺韻 시킬 수도 있고, 혹은 隔句押韻-한 句씩 걸러 押韻-의 원칙을 어길 수도 있으며, 때로는 誤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부의 押韻 파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드물게는 押韻이 작자의 의도와 다를 수도 있으니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고, 혹은 필자가 파악한 押韻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귀납한 형태적 3요소는 가장 신뢰할만한 사부의 형식적 요건일 것이라고 믿는다. 아직 충분한 검증을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부문학을 본격적으로 규정하여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아직도 사부로 인식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작품을 언제든지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사부문학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엿한 허균의 사부문학이면서 제목이 잘못되어 버려

진 「解命文」 「對詰者」 「遣加林神」 3편을 들어 여기에서 추출한 3원칙을 적용하여 그것이 어김없는 사부문학임을 입증하는 것도 이 연구 목적의 일환이다.

1. 東征賦

癸卯 余自太僕 落職東歸

계묘년에 관직에서 물러나와 落鄉하여

回游楓岳 遂之溟州別墅 留焉數日

풍악을 거쳐 강릉에서 수개월을 머물렀는데

海山之觀 寔多瑰奇

산과 바다를 보니 모두가 수려한 장관이었다.

爰命翰以賦其事 才愧興公⁸⁾

이에 붓을 들어 賦를 지으니 재주가 孫綽을 따르지 못하여

不能盡台嶺之美焉

그 山嶽의 아름다움을 다 그리지 못하였다.

後之覽者只取其曠述幽踐而恕其詞拙可也

뒷날 사람들이 글 못남을 탓하지 않고 너스레를 보아준다면 다행이겠다.

夙承皇之渥惠兮 叨司戒乎祚招◎

일찍이 聖恩을 크게 받고, 황공하옵게도 분에 넘치는 官爵을 받아

睠阿閣而連軒兮 聆九陛之舜韶◎

구중궁궐 거닐었고, 화려한 궁중음악을 들었었네.

嗟貞乘而自昧兮 遂致寇於清朝◎

아, 곧음만 내세웠지 世事에 어두워 모함을 받아 官職에서 물러났네.

既與世而相違兮 寧海山之逍遙◎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였으니 차라리 자연에 逍遙하리라.

慨余行之遲遲兮 出國門而東邁◎

발걸음을 재촉하여 대궐을 나와 동으로 내달았다.

8) 中國 東晉의 孫綽의 號. 그의 작품 중 「天台山賦」를 意中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欣我服之返初兮 快帝懸之已解◎
 本然的 모습으로 돌아감이 기쁘고, 官爵의 구속을 벗어남이 좋도다.
 駸余駟乎梓里兮 邸余車乎金淵◎
 말을 몰아 고향으로 내달려 금연에 이르니
 喜賢甥之倒履兮 關賓榭而開筵◎
 어린 조카 반가이 뛰쳐나와 자리보아 기쁜 잔칫상 벌였구나.
 逐澗曲而泛舫兮 命榜人而刺舡◎
 계곡의 물 좇아 술잔을 띄우고 사람 불러 뱃전장단이 흥겹다.
 翩翩膾之落箸兮 令我飽而忘旋◎
 고운 생선회 맛드러져 배불러도 돌아갈 줄 모르도다.
 謁舅塋於南岡兮 悲梓樹之蔚芊◎
 남강에 올라 外家 先塋에 省慕하니 잠목 우거졌음이 슬프도다.
 循脩途而浪宿兮 風露悴兮蕙帶◎
 旅路 험한 나그네길 비바람에 초라한 몸차림으로
 阪阿迤之不踰兮 川何洑之不厲◎
 험한 고갯길 넘기 어렵고, 물길마저 막히누나.
 云余屈夫金城兮 地主館諸西廂◎
 금성에 막혀버린다 하더니 낮선 집 사랑에 묵였도다.
 詠同氣之遺什兮 渙余涕之盈眶◎
 형제의 離散을 생각하니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遵通溝而抗策兮 陟斷髮之崑嶺◎
 통구를 따라 채찍을 잡고 단발령 높이 올라
 睇萬玉於雲際兮 覺游興之先聘◎
 구름 아스라한 곳, 일만 玉峰 바라보니 온갖 감회가 앞서도다.
 跋川漲而透漚兮 昏余抵兮長安◎
 솟구치는 성난 계곡에 걸음 더더 늦게야 長安寺에 다다르니
 正殿崑以千霄兮 施獲燦其金丹◎
 하늘 높이 솟은 大雄殿에 丹青이 찬란하다.
 儼佛軀之紫磨⁹⁾兮 疑彷彿乎泥洹◎
 금빛 찬란한 위엄의 佛像을 보니 涅槃에 이른 모습이고,

9) 原稿에는 摩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 磨로 고침.

壁初繪乎李楨兮 誦道玄¹⁰⁾之開元◎
 李楨의 佛畫를 벽에 걸었으니 吳道玄의 그림을 보는 듯.
 紛龍天之走趨兮 絢玉豪於雲端◎
 龍이 어지러이 하늘을 날고, 구름 끝에 珠玉이 찬란하다.
 喚山僮而舉藍兮¹¹⁾ 從百川而東折◎
 아이 불러 藍輿 타고 백천동 따라 東으로 가니
 飛流厖以噴壑兮 峯屹戍而峭拔◎
 계곡의 물은 골짜기를 울리고 봉우리는 우뚝 섰다.
 涉十王之淵湍兮 闢靈源之金利◎
 十王川 거친 골짜기를 건너 靈源寺에 머물렀다.
 晨理履於松蘿兮 攀望高而峻躋◎
 아침 일찍 송라암을 출발하여 망고대 험한 길 올라,
 崖斗絕而乘絙兮 雙性命之幾墜◎
 깎아지른 절벽 겨우 오르니 헛된 인간의 모습이 덧없도다.
 振余衣於高頂兮 襲衆壑之下低◎
 산봉우리 올라 옷을 떨치니 온갖 골짜기 발 아래 치마 구름 같도다.
 窺鬪龍於鳴湫兮 估蜿蜒而潛伏◎
 못 龍이 다투는 소리 들리더니 어느덧 용트림하고 서려 있구나.
 訪正陽之吳畫¹²⁾兮 遂東樓之馳矚◎
 正陽寺에서 吳道玄의 佛畫를 보고 동루로 말을 달려보니,
 森東玉之攢空兮 列瓊嶂之萬疊◎
 숲은 옥을 묶은 듯 공중에 솟아 둘러쳐져 있고,
 或綺鸞之翱翔兮 或白螭之翕捷◎
 난새가 흰 날개를 펴 날고, 백룡이 꿈틀대고,

- 10) 唐 玄宗代人. 字는 道子. 佛畫와 山水畫를 잘 그려 畫聖으로 불림.
- 11) ‘舉藍’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더욱 가파른 길을 가마를 타고 오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자의 ‘與石洲書’는 그 주된 내용이 金剛山紀行으로 되어있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이 ‘明登眞歇臺去藍步躋開心臺’로 되어있어, ‘舉’는 ‘去’로 보아야 보다 순리적이다. 그러나 原文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 12) 吳道玄이 그린 그림. 작자의 「八角殿看佛畫」에 “皆云道玄 來畫垂千歲 道玄是貴臣 何緣遊海外”라는 구절이 있다.

或大士之捧珠兮 或散聖之步屨◎
 큰스님의 염주알 같고, 성인의 발자취 같기도 하고,
 或威鳳之矯頸兮 或天馬之振鬣◎
 봉황의 화려한 목 같기도 하고, 천마의 휘날리는 말갈기 같기도 하고,
 或霜蓮之未綻兮 或玳簪之將盍◎
 흰 연꽃봉오리 머금은 듯, 玳瑁冠 쓴 듯하고,
 或決驟而奮躍乎 或騰蹕而颯沓◎
 말이 한꺼번에 내닫는 듯 뛰어오르듯 아득하고,
 或如仰而更俯兮 或若倒而還立◎
 하늘을 우러르듯, 다시 굽어보듯, 거꾸로 선 듯, 다시 선 듯,
 或壁堆而瑰錯乎 或側盆而覆笠◎
 벽이 무너져 쌓은 듯, 동이를 기울여 놓은 듯, 샷갓을 엮은 듯,
 駭萬狀之競奇兮 羌不可乎應接◎
 만물이 놀라 기이함을 자랑하여 이루 형언키 어렵도다.
 忽夕陽之西轉兮 映滿谷之霜楓◎
 어느덧 해는 서산에 기울고 골짜기 서리단풍 가득한데,
 組紫綵而綴絳兮 峴崎岫之酣紅◎
 계곡은 온통 보라빛으로 채워져 있고, 뿔부리는 붉게 타 오르고,
 絢玉彩而週阿兮 想錦幘之飄風◎
 찬란히 둘러 처진 오색단풍은 아마도 비단휘장이 바람에 날리는 듯하다.
 引虛步而漸升兮 踞開心之簾屺◎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느덧 개심대 절벽에 올랐네.
 非地勢之陟高兮 儵諸峯之眼底◎
 어느새 모든 산이 눈 아래로 보이도다.
 爐煙生乎蘿逕兮 飄磬韻於林表◎
 香火는 오솔길에서 피어오르고, 風磬은 숲에 울린다.
 辨九¹³⁾之古菴兮 指禪燈之相照◎
 구십의 암자에는 선등이 깜빡거리고,
 表獨立乎生臺兮 俄彩蟾之吐耀◎
 우뚝 솟은 봉우리에 어느새 달이 돌아 오른다.

13) ‘九十’은 문맥상 ‘九井’이 아닐까 한다. ‘九井峰의 庵子’. 그러나 原文을 존중함.

爛桂影之玲瓏兮 敞銀闕乎岩峭●

계수나무 그림자 영롱한 곳에 옥황궁궐 굉장하다.

手清輝而起舞兮 隘八荒而爲小●

손을 휘저어 仙舞를 추니 천하가 우습도다.

臨青鶴之舊巢兮 涉萬瀑之層磴●

청학 깃든 보금자리 지나 만폭동 절벽 건너니

屈天潢而注壁兮 噴薄而電愜●

천상의 연못을 기울여 절벽에 쏟아 부어 벽력을 치는 듯 천둥이 진동한다.

矯玉虹而下飲兮 掉奔海之群龍●

무지개 내려와 물 마시는 듯하고, 못 龍들이 일시에 바다로 내닫는 듯,

激濺沫於潭洞兮 白日忽其晝昏*

물보라 뿜어 올라 폭포에 자욱하니 햇빛마저 어둡도다.

繽杰觀之暢心兮 壯造化之神功●

보이는 것마다 장관이니 조화옹의 신공이로다.

摩龍額於石刻兮 將萬峯以鬪雄●

바위마다 龍이 서린 듯 만 이천 봉우리가 다투는 듯하고,

觀一柱於普德兮 疇千歲之不仆*

우뚝 솟은 普德嶺의 돌기둥, 천세에 불멸하리라.

取線路於圓通兮 瞰火龍之所府*

원통길 잡아가니 火龍淵이 여기로다.

宿摩訶之仙都兮 夜清冷而不眠●

마하仙舍에 묵으니 밤기운 서늘하여 잠 못 이루는데,

風杉灑於泉籟兮 況笙簫之降天●

바람이 숲을 울려 샘물을 울리고, 신선의 피리소리마저 하늘에서 들리네.

蓐首¹⁴⁾途於白田兮 漱九井於危巔●

가을은 白田寺에서 시작되고, 구정봉은 높이 솟아있고,

擬揖仙於毘盧兮 風雨搗其攀緣●

신선자태의 비로봉에 비바람 거세게 몰아친다.

下寂滅而橫濟兮 凌星門而南渡●

적멸암 아래로 물을 건너 성문을 넘으니

14) ‘首’는 ‘收’의 잘못이 아닐까 한다. 蓐收는 秋神, 刑神.

駢亂石以搏人兮 若怪獸之呀努◎

어지러운 바위 발길을 묶는데 사나운 짐승 으르렁거리듯 하고,

上隱身而頰眺兮 水浩漭而山龔

몸을 숨기고 아찔한 아래 바라보니 까마득한 곳에 물은 질펀히 흐르고 뒀는 높이 솟아있다.

鬱嶙峋而起抑兮 扇長飈之海濤◎

산은 기기묘묘 솟구치고, 내려앉고, 바다의 물결은 거세다.

誰鋪雲而闕嵌兮 閃電光於腳下◎

누가 구름을 흩어 심산궁곡에 감추었는가. 발 아래 번개가 번쩍인다.

雷隱轡而驅雨兮 向日輪之巒嶠◎

천둥 번개가 비를 몰고 오더니 어느 새 해가 봉우리 사이에서 빛나네.

信天柱之非誣兮 寔茲游之堪詫◎

천지조화의 신묘함이며, 이번 여행이 진정 자랑스럽다.

亟屏翳之收陰兮 排千瀑於層嶂◎

음양을 조화하여 천 갈래의 폭포를 걸어두었네.

誰名之以十二兮 哂坐井而猜量◎

누가 12폭포라 하였는가? 그 좁은 식견을 비웃도다.

盪雲夢之八九兮 遂弭節兮榆帖◎

세사번뇌를 씻어내려 유점사에 머물러

禮五十之金身兮 枉百泉而灑澆◎

50위 부처님께 禮佛드리니 煩惱는 백천을 건너 사라지도다.

望三日之丹書兮 想舊躅於東巖◎

삼일포 단서를 찾으며 옛날 동암의 발자취를 그려 보고,

背明波而竝海兮 覲仙老於遼城◎

명파를 뒤로 하고 파도를 끼고 내려가니 수성에 신선을 보리로다.

發篋中之高文兮 播秦漢之餘馨◎

高文典籍을 뒤적이며 先學文人을 따르고자.

披秋濤與瑞錦兮 鏗雅樂之錡鳴◎

가을바다 물결은 비단결 같아 소리마저 쟁쟁하고,

靚千秋之逸軌兮 敵楓岳之崢嶸◎

아득한 세월의 흐름에도 풍악산은 높이 솟아있네.

洵此行之最富兮 文與山其是并望◎

참으로 값진 여행길에 글이 자연과 함께 하도다.

寶陀於煙外兮 驅余駢於洛迦●

말을 몰아 洛迦寺에 이르니 부처님 계신 곳에 瑞雲이 감돌고 있네.

拓東窓而賓日兮 撫六合而高歌●

동창을 열어 일출을 맞으며 천지를 노래하니,

唯鑑湖之弊廬兮 合晚境之婆娑●

맑은 호숫가 낡은 집에 세상풍파가 노을에 붉고,

卷千里之勝迹兮 陶一壑之煙霞●

천 리의 絶勝이 골짜기 연하 속에 모여 있구나.

理襟懷而自娛兮 劃世念之消磨●

가슴의 회포 즐기며 세과의 근심을 잊고자.

彼軒裳之足憂兮 懷宦海之湧波●

부귀공명을 좇는 근심, 관좌에 눈이 어두워,

思輒慄而夢魘兮 肯余踐之再蹉●

꿈자리마저 사나우니 꿈 속에서 다시 前轍을 밟는다.

倘久享乎清福兮 知儂得之最多●

청복을 누릴 수 있다면 만족함을 알아

樂天命而奚疑兮 安吾適而葆和●

천명대로 살면 그뿐, 나의 삶을 절로 편안하리.

伴猿鶴而相羊兮 寄我矢於碩適●

원숭이, 학을 벗 삼아 자족하고 내 뜻을 기를진저.

日復日而優哉兮 惟百年之幾何●

나날이 새로운 즐거움을 거두리니 백년이 다 무엇인가?

望美人於四方兮 忽惆悵而長哦●¹⁵⁾

미인을 생각하니 서글픔 누를 길 없어 길게 탄식하도다.

「東征賦」의 제작연대로 밝혀진 癸卯年이라면 1603년으로 許筠의 나이 35세 때이다. 순탄하다 할 수 없는 그의 일생에 대해서 상론할 겨를이

15) 許筠, 『惺所覆瓿稿』 卷13, 「東征賦」. 原文은 民族文化推進委員會 編, 『韓國文集叢刊』의 『惺所覆瓿藁』에 依據함. 譯文은 辭賦의 文學적인 正서전달을 위하여 原義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자 나름대로 意譯을 위주로 하였다. 이하 같음.

없지만 「東征賦」는 司僕寺正에서 물러나서 江陵의 外家로 落鄉 하였을 때에 지어진 것이다. 관직에서 물러난 아쉬운 감회가 드러나 있고, 조카의 영접을 받고, 外舅의 先塋에 省墓하는 내용으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許筠의 辭賦에 있어 關東지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許筠의 辭賦 14편 중에서 紀行的 성격을 띠는 작품은 「東征賦」 외에 「竹樓賦」, 「思舊賦」, 「東林城賦」, 「北歸賦」 등 5편으로 매우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이는 여타의 작가들의 작품내용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 중에서 「東征賦」, 「竹樓賦」, 「思舊賦」 등 3편의 작품무대가 關東地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관동지방이 許筠의 주요한 작품 무대였다는 사실 외에, 그의 작품이 절실한 현장묘사로 辭賦의 일반적인 병폐의 하나인 觀念的이고 空論的인 虛構에 그치지 않는 절실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3편의 작품 중에서도 「東征賦」가 가장 현장감을 잘 살렸고, 紀行的 낭만적 정서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첫손가락을 꼽을 만하다. 이제 본편의 辭賦로서의 특징을 검토한다.

첫째, 작품의 구성에 있어 3段構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른바 3단구성이란 辭賦가 갖는 일반적인 형식의 구조로 序·本·結의 양식을 말함이다. ‘序’란 ‘竝序’로도 일컬어지는 작품의 虛頭로서 작품과는 직접적인 정서적 관계는 적으나 작품에 앞서서 그 작품의 제작 동기, 의도, 성격 등을 밝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작품의 序로 볼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異論이 제기된 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辭賦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竝序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작품의 첫 부분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의미상으로 본문과 구분될 수 있어 ‘序’의 직능을 수행하고 있다. 辭賦에서 ‘結’의 모습을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이른바 ‘亂詞’로 불리는 끝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상론할 겨를이 없지만 간단히 줄여서, 작품의 본문이 끝나고 나면 ‘亂曰’, ‘諄曰’, ‘訊曰’, ‘歌曰’, ‘重曰’ 등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이하의 내용은 全文

의 要約이요, 總括整理로 되어있다. 그러나 모든 작품이 ‘亂詞’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경우 다른 감탄사를 동원한다든지 본문과는 다른 字句의 형식을 구사하여 ‘結’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아무런 외형적 표지도 없고, 字句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문맥상으로 본문과의 구별이 가능하다. 결국 辭賦는 위와 같은 序·本·結의 3段構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東征賦」의 경우 우선 並序가 따로 갖추어져 형태적으로 序가 분명하니, 처음부터 “後之覽者 只取其曠述幽踐而恕其詞拙可也”까지가 그것이고, 내용적으로도 작품의 제작시기, 동기, 배경, 의도 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 작품 전체의 구조로 보면 “夙承皇之渥惠兮”부터 “快帝懸之已解”까지를 내용적 정서적인 序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행에 앞선 상황과 심경을 적고 있기 때문이다. 「東征賦」는 同型句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結의 부분이 형태상으로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陶一壑之烟霞”까지 여정이 끝나고, “理襟懷而自娛兮”부터는 감상적 정서의 表白으로 작품이 정리되고 있어 結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결국 「東征賦」는 序와 본이 형태적, 내용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結은 내용적으로 나눌 수 있어 3단구성의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辭賦의 구성은 漢詩의 4단구성이나 소설의 5단구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辭賦 나름대로의 구조로 간주한다.

句식에 있어 본편은 前, 後 6字句로 시종일관하고 있어 매우 정제된 형태이다. 그 사이에 끼어들어간 ‘兮’자도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고착된 字句형식을 하고 있는 사부도 적지 않지만 아무래도 辭賦의 典型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부 句型の 전형은 역시 四六駢驪句라 할 수 있는데 뒤에 나올 「竹樓賦」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론되는 「東征賦」와 「思舊賦」의 句型은 사부의 전형은 아니지만 그 類型的의 하나로서 사부의 형식을 갖춘 셈이다. 다만 并序 부분은 본문과 달리 散文句를 구사하고, 押韻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辭賦의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본문에서는 한 句 걸러서 규칙적인

압운을 구사하고 있어 엄정한 형식미를 과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사부의 한 典型이라고 할만하다. 대개 중국에 비하여 우리가 압운에 더 철저하며 許筠이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로 표시된 부분에서 압운이 빠져있는데 길이가 긴 작품의 경우 이러한 缺韻이 발견되는 수가 있다. 이는 漢詩와는 다른 사부의 형식상의 여유여서 역시 사부의 형식 안에 들어있다.

이 작품은 鄭澈의 歌辭인 「關東別曲」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여 兩者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만약 兩者간에 영향관계가 있다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의미가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나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¹⁶⁾

2. 思舊賦

丁未歲四月 余赴眞珠 路由溟州

정미년 사월 江陵을 거쳐 三陟 眞珠館에 이르렀다.

耆舊多凋喪而州經大水 邑里寥落

고인들은 늙고 병들고, 홍수가 휩쓸고 가 마을은 적막하여

無復昔日繁華之賞矣

옛날의 변화한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없었다.

到梅軒芍藥依舊滿院而悄無人焉

매헌의 작약은 예와 같이 뜨락에 가득하나 인적이 끊어졌으니 서글프고,

感事傷時 不覺漚然

애닦은 시절을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흐른다.

噫自余來往于茲今十六年矣

슬프다, 내 여기 와본 지 어언 십육 년,

當時鄉老皆無恙 讌集過從無虛夕

당시에 鄉老들 모두 여기 모여 밤을 지새워

16) 拙稿, 「鄭澈 「關東別曲」과 許筠 東征賦를 통해 본 歌辭와 辭賦의 因緣關係 考察」, 『熊津語文學』 4집, 熊津語文學會, 1996. 참조.

酒賦淋漓 以酬勝踐

詩賦와 술이 질당하여 몸 가누기조차 어려웠고,

迨周星已同夔圃之觀¹⁷⁾

주성이 돌을 때는 孔子門徒들과 같았는데

今則餘者落落晨星矣

지금 남아있는 자 드물어 희미한 별 같구나.

俯仰宇宙 人生幾何

광대무변한 우주를 생각하니 인생이란 무엇인가?

吾亦早衰多疾 居此世亦無幾何

나 역시 일찍 쇠약하여 병약하니 얼마나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後人弔今如今之弔昔世 豈不悲哉

후세가 오늘을 가련히 여길 것이니, 지금 옛날을 애련히 여김이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古人有一死生齊彭殤¹⁸⁾之語

옛사람이 인생을 彭祖와 殤子에 비겼으니

其亦抑哀而自寬者也

그 또한 인생의 덧없음을 위안하고자 했음이라.

遂抽思而爲之賦 是向子¹⁹⁾山陽之感也已

이에思念을 가다듬어 賦를 지으니 이는 向秀의 山陽賦에 가름이라.

余遭世之迫阨兮悲屢躓於名途●

내 삶의 험난함이며, 환로에 얽매임을 슬퍼하노라.

既榮祿之不吾謀兮思自放於江湖●

벼슬도 부귀도 원하는 바 아니니 다만 강호에서 자유롭게 싶을 뿐.

-
- 17) 夔圃는 夔相의 채마밭. 夔相은 中國 山東省 曲阜縣에 있는 地名. 孔子의 고향으로 이곳에서 공자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射의 禮를 익혔다고 함.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이는 뜻이 높은 선비들의 高雅한 모임이라는 뜻.
 - 18) 彭祖와 殤子. 彭祖는 전설상의 인물로 신선술을 터득하여 800년을 살았다고 함. 흔히 장수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됨. 상자 역시 전설상의 인물로 단명한 이의 대표적인 이로 자주 작품에 등장함. 長壽와 短命의 대립적인 인물. (『莊子』, 「齊物論」, “莫壽乎殤子而彭祖爲夭.”)
 - 19) 晉 竹林七賢의 한 사람. 이름은 秀, 字는 子期. 向의 음은 상.

容一麾之出守兮亦聖恩之涵濡●

한가한 守丞을 맡기시니 역시 성은이로다.

飾輿馬而速邁兮云指夫悉直²⁰⁾之古都●

행차를 거느리고 동으로 가니 悉直의 옛 도움이라네.

朝余憩乎橫溪兮夕余踰乎關嶺●

아침에 황계에서 쉬고, 저녁에 대관령을 넘어서

臨溟州之舊鄉兮喜覩夫仙境●

강릉 옛 고을에 다다르니 선경을 다시 봄이 기쁘도다.

僕夫煩而過駕兮貫長薄而載騁●

말잡이는 신이 나서 행차를 서두르고 관리들이 분주히 나와 마중한다.

痛民生之無祿兮皇數降其災眚●

무고한 백성들의 고통을 슬퍼하노니 하늘의 재앙이 끊이지 않도다.

憑陽候之吼怒兮襄大陸以洪波●

水神이 노하여 땅에 올라 물바다를 만드니

決金堤而壞巨防兮鏗隰岸之巖岨●

커다란 둑을 터서 진지를 무너뜨린 듯 깎아지른 절벽을 만들었구나.

警老稚之水湍兮餌幽窟之鮫鱗●

놀란 늙은이 어린애들이 급류에 휘말려 굴에 숨어있던 상어 거북이 밥이 되고,

櫛千家之傍郭兮今沈沒而成河●

人家가 즐비하던 城市가 지금은 물바다 되었구나.

訝新經乎兵火兮或滄桑之變改●

어찌 戰亂까지 휩쓸어 옛 모습을 찾을 길 없으니

唉酷罰之奚偏兮吾將罪夫眞宰●

아, 재앙이 어찌 이곳에만 내리는가? 내가 하늘에 죄를 지었는가?

旣閭落之半無存兮問故人之疇在●

마을은 황폐하여 옛 모습이 없어져 길을 물어 故人을 찾아야 했다.

陳壺觴而忻迎兮雜冠綉與臺隸●

여러 관리들이 주연을 베풀어 반가이 맞이하며

稍慰余之中情兮強驩笑而徘徊●

은근히 나를 위로하니 억지웃음으로 서성인다.

20) 悉直은 三陟의 古名.

躡余履乎墻東兮訪清軒之雙梅●
 발걸음을 천천히 동으로 돌려 청헌의 쌍매를 찾아
 問主人之焉如兮邈笙鶴於蓬萊●
 주인의 행방을 물으니 蓬萊山 仙鶴소리 들으러 갔다네.
 悄庭院之寥寥兮窺桂宇兮塵埃●
 뜨락의 쓸쓸함을 슬퍼하며 먼지 쌓인 집안을 기웃거리니
 步循除而懷惻兮尙階繡夫紅藥●
 섬돌마다 슬픔이 쌓였어도 芍藥은 여전히 붉다.
 嗟簪履之已散兮奄綠苔兮生閣●
 아, 옛날의 관리들은 흩어졌고 이끼만이 가득하구나.
 舊遊閱其難追兮音容又以冥漠●
 그 옛날의 낭만은 찾을 길 없고, 그 풍류마저 아득하다.
 起臨風而自弔兮渙余涕之迸落●
 쓸쓸한 바람 맞으며 슬퍼하노니 절로 눈물이 북받치고,
 慘彷徨而不忍去兮白日忽其西沈●
 서성이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데 해는 어느덧 서산에 진다.
 幽泉咽而不流兮翔鳥呼乎北林●
 깊은 샘은 말라있고, 새는 북림에서 운다.
 欲舒悵而永嘯兮聲淒厲不成音●
 슬픔에 겨워 휘파람 부나 처량한 소리일 뿐 노래 못 이루고,
 哀人生之處世兮一俯仰而古今●
 인생이 세상에 부처짐이여, 천지고금을 생각하니
 覽逝者之如斯兮誠此身之難久●
 사라지는 것이 모두 이와 같으니 참으로 이 몸이 무상함을 알겠노라.
 紛陰陽之代謝兮孰喬松²¹⁾之遐壽●
 세월의 흐름이 쉴 새 없으니 누가 신선이 되었는가?
 撫身軀而自悼兮固非吾之長有●
 새삼 구차한 몸 어루만지며 슬퍼하노니 신선이 아님을 어찌하라?
 奚觸險而循利兮竝貪夫而同朽●
 어찌 위험스레 利慾을 좇아 탐욕에 빠질 것인가?

21) 王子喬와 赤松子. 모두 전설상의 신선의 이름.

唯海山之清絕兮佇逍遙乎殘年●

오로지 자연의 청절을 배워 餘生을 逍遙하고자.

不待督郵之來侵²²⁾兮擬著夫歸去之篇●

高官이 닥치기 전에 歸去來辭나 읊으면서

終天命而任化兮庶或賢乎貪權●

하늘의 造化에 맡겨 탐욕권세를 벗어나리라.

情紆鬱而還返兮僑舍寂其無眠●

울적한 심정으로 돌아왔으나 잠 못 이루고

月幽幽而瞰帷兮燈翳然而向壁●

달빛 은은히 자리에 들고, 등잔불은 벽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운다.

羌百感之集腸兮愴山陽之聞笛●

은갖 근심이 쌓이는데 山陽²³⁾의 피리소리마저 애닦다.

援雅琴而命操兮寫余恨之蕭憾●

거문고 끌어안고 쌓인 恨을 풀어내니

霑金徽而至曙兮悵東方之既白●

눈물은 갓끈을 흘러 새벽까지 적시고, 벌써 날이 밝아움을 슬퍼하노라.

「東征賦」와는 달리 旅程보다는 서정적이고 관념적인 묘사에 주력하였다. 이밖에도 兩者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작품의 제작 동기에 있어 前者가 벼슬에서 물러나온 失意와 좌절이라면, 後者는 새로이 벼슬자리에 부임하는 것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前者가 關東지방의 여러 명승을 여정에 따라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라면, 後者는 단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旅程을 처리하고, 대신에 절실한 정서를 드러내는 데에 주력하였다. 前者가 짙은 서사성이라면 後者는 보다 서정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작품에 드러난 정서적 태도는 작품의 동기

22) 일설에 의하면 陶淵明이 「歸去來辭」를 짓게 된 동기는 그가 彭澤의 縣令시에 상급자인 督郵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 벼슬을 그만 두고 귀향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23) 山陽은 嵇康의 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向秀가 은거했던 곳. 즉 向秀의 피리 소리를 말함. 이 작품은 상수의 「山陽賦」를 염두에 두고 지었다.

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失意에서 비롯된 「東征賦」는 오히려 佛家的·儒家的 신념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데 반하여, 後者는 得意의 상황에서 오히려 懷古와 失志의 심경을 道家的 隱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窮達에 의해서 함부로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높은 선비의 정신세계를 과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三陟府使라는 ‘한가한 수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思舊賦」는 보다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고, 그것은 그의 현실적 불만의 토로였다. 그만큼 許筠의 뜻은 큰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聖恩’이었다는 최소한의 관습적 人臣으로서의 의식도 잊지 않았다.

구성에 있어 본편은 ‘并序’가 따로 있고, 결말인 ‘亂詞’의 표지는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명확한 3단구성은 갖고 있지 않으나, ‘울적한 심정으로 돌아온’ 장면에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어 결말의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3단구성으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 작품은 전편에 걸쳐 ‘兮’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작품도 전편에 걸쳐 隔句로 換韻해가며 엄정한 압운을 하고 있다, ‘兮’자의 규칙적 사용과 더불어 辭賦의 정형률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다. 并序에는 압운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字句 구사는 앞서의 작품과 같은데 이러한 엄정한 틀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사부의 典型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앞 작품과 사정이 비슷하여 사부의 형식적 요건으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

내용면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짙은 감상적 태도이다. 그리고 그것은 道家的 낭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宦路의 험난함을 탄식하고, 세상의 名利에 초연하고자 하며, 官職에 부임하면서 곧 「歸去來辭」의 掛冠의 심경을 토로하고, 仙界를 연모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문학적 흥취를 높이는 것이겠지만 유가적 사대부로서, 방백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이는 그의 도가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현실적 불만에서 오는 失意의 表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亦聖恩之涵濡”라 하여 신하로서의 儒家的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시의 문학적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兵火와 水魔가 활취고 간 폐허를 돌아보고 牧民으로서의 절실한 자세를 보이고, “吾將罪夫眞宰”라 하여 儒家的 사명의식을 보이는 장면에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좋았으나, 이는 순간적인 감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에 相應되는 고을로서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앞에서 언급된 대로 개인적인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풍부한 문학적 역량을 과시한 것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작품 외적으로는 관리로서의 현실적 책임은 외면한 것이라는 추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수해 현장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평범한 水害가 아니라 당시의 쓰나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참혹하다. 만약에 이 水災가 엄청난 海溢이 맞다면 작자의 태도는 준열한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3. 竹樓賦

歲在丁未 余宰眞珠●

정미년에 三陟府使로 임명되었다.

公餘覽勝竹西之樓●

公務의 나머지 틈을 내어 죽서루에 오르니,

矚頭陀之萬丈兮臨五十之瓊流●

두타산이 만 길이나 솟아있고, 오십천 맑은 물이 발밑에 흐른다.

邇長風而永嘯兮聊以舒夫離憂●

큰 바람에 긴 파람으로 근심을 씻어내니

日旣晚以向夕兮羌欲去而少留●

해는 서서히 서산으로 향하다가 잠시 머물러 있고,

于時春物尙餘 夏景初麗●

때는 남은 봄기운에 초여름이 펼쳐졌으니,

雜花映欄 濃陰覆砌●

온갖 꽃이 난간에 흐드러지고, 녹음이 섬돌을 덮었고,

回廊闌以無人兮鳥語媚其新霽●

마루에는 인적이 끊겼고, 새는 고운 소리로 비 갠 하늘을 노래하고,

山翠滴兮霏霏 竹煙生兮細細●

녹음은 우거져 푸른 물이 듣는 듯하고, 죽림에 피어오른 아지랑이가 귀엽다.

余乃披雪斃岸華陽●

흰 鶴斃衣 입고, 신선골에 앉아

手玉塵 偃匡床●

흰 눈을 희롱하며 평상에 누워도 보고,

俯庭除之喬林 凝畫戟之清香●

뜨락의 숲을 굽어보며 화려한 깃발에 서린 맑은 기운을 바라보기도 하니

蓋三子之同調兮亦相隨而徜徉●

三子²⁴⁾가 한데 모인 듯 서로 어우러져 逍遙한다.

於是命膳夫促華饌 旨醴登嘉鮪●

이에 슈을 내려 주연을 베풀게 하여 산해진미를 갖추고,

薦匏箏梓瑟 雜奏徵變●

온갖 풍류악기를 펼치니 한바탕 어우러진다.

揚子夜之新聲 引結風之初轉●

子夜歌 新曲을 올리니 바람마저 따르는 듯하고

聊窮驪而自虞兮忘此身之異縣●

흥을 다하여 즐기니 객수마저 잊겠구나.

少焉娥暉未舒 桂燭高燒●

이윽고 햇살이 가시더니 촛불이 밝아지고

夜色澄涼 波光沈滲●

밤 공기는 청량하고, 물결소리는 허공에 가득하니

銀河耿兮瑤蕙 玉繩低兮琳霄●

은하수는 용마루에 걸쳐있고, 流星은 밤하늘을 수놓는다.

捲珠箔而容與兮指蓬島之非遙●

주렴 걷고 그윽히 바라보니 仙島가 멀지 않고,

24) 三子는 통상 老子, 莊子, 列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작자의 성향상 陶潛, 李白, 蘇軾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許筠은 이 세 인물을 자주 흠모해 왔다.

超逸興之過飛兮覺浮丘之可招◎

미친 흥이 절로 나니 신선을 만날 듯하도다.

爾其衆賓既醉 樂事方極◎

좌중은 이미 취하였고, 주연은 흥겨워

諧唱未弭 我懷以惻◎

노랫가락 그치지 않는데 나는 서글픈 회포에 젖는데

悲流光易失兮若逝川之頽波◎

光陰 잡지 못함이 흘러가는 물과 같음을 슬퍼하노라.

世故糾而催人兮嗟少壯之幾何◎

옛사람이 그랬었지. 젊은 청춘이 그 얼마냐고?

念代謝之必至兮知來日之無多◎

후생이 곧 이어올 것이니 앞날이 짧음을 알겠노라.

奚臨觴而不御 願抒情而高歌◎

어찌 술잔을 놓고 볼 것인가? 노래로써 회포를 풀어 보리라.

歌曰紫簫咽兮露氣團◎

통소 흐느낌에 이슬방울 맺히고,

金壺滿兮芳夜闌◎

술동이는 가득하고 야경은 무르익는다.

浮生兮若寄 胡不樂兮永嘆◎

인생은 잠깐 부처진 것, 어찌 탄식만 하고 즐기지 않을 것인가?

歌竟以吁四座寂然◎

노래를 마치니 좌중은 적막하고

憑欄悵望 月在高天◎

난간에 기대어 서글피 바라보니 달만 높이 떠 있구나.

이 작품 역시 許筠이 三陟府使에 在職했을 때의 작품이다. 채 석 달도 안 되는 삼척부사였었기 때문에 「思舊賦」와의 제작 시기는 그리 멀지 않다.

우선 구성으로 볼 때에 ‘歌曰’이라고 명시하여 결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과는 다른 字句형태를 구사한 것도 결말구조

를 밝히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수사적 장치이다. 다만 序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명치 않은 점은 사부의 일반적인 틀에 적합한 것은 아니어서 다소의 형식적 약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처음 竹西樓에 오르는 장면이 짧기는 하나 의미적 序로 볼 수 있다면 양해가 될 듯도 하다. 사부에는 이렇게 부분적인 구조의 약점을 보이는 작품도 적지 않으니 이것으로 이 작품이 사부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작품은 앞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字句형식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四六駢體라 할 수 있는데 이야말로 가장 사부적인 句型이라고 할 수 있어 자랑이다. 字句구사로써 漢詩와 산문과의 차이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押韻도 전편에 걸쳐 갖추고 있어 사부의 均齊美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형태적 구조는 이 작품이 사부의 형식적 특징을 온전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작품이 사부로서 구조의 약점을 보이는 이유는 작품의 모티브를 소식의 「赤壁賦」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思舊賦」에서 간간히 볼 수 있었던 牧民官으로서의 사명의식마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도 「적벽부」가 가지고 있는 道家의 超越的 神仙思想, 風流浪漫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牧民官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현실과 遊離된 문학적 자세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백성을 책임져야 할 牧民官으로서 한가한 풍류묵객의 전원한정을 표방하였으니 문학적으로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자세였던 것이다. 따라서 「思舊賦」에서 볼 수 있었던 현실과 이상과의 갈등 또한 찾을 수 없다. 작자는 부임한 지 불과 석 달만에 파직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 작품은 허균이 다른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작품적 독창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이상 허균의 사부작품 3편을 들어 형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귀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적으로 3단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東征賦」와 「思舊賦」는

별도의 서문을 가지고 있어 머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竹樓賦」는 이러한 별도의 장치는 없으나 의미상으로 머리에 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東征賦」와 「思舊賦」는 명시적인 결말 장치는 없으나 의미상으로 구분되는 결말 구조를 갖추고 있다. 「죽루부」는 「歌曰」이라는 명시적인 결말장치를 갖추고 있어 序頭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序와 結末을 제외한 부분이 작품의 본문이 된다. 결국 이 3편은 부분적으로 다소 구조상의 허술함이 엿보이나 이런 정도의 흠이 사부의 구조 형태를 뒤집을 수는 없다. 실제로 한 작품이 서, 본, 결의 명시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구조상의 약점은 사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상 無選標集된 3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추출된 사부문학의 3단 구조 형식을 사부문학의 일반적 형식요건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정제된 字句형식을 가지고 있다. 「동정부」는 前7字, 後6字의 자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前句의 끝 자는 한결같이 虛辭인 ‘兮’로 되어 있어 가장 엄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思舊賦」도 가끔 한 두 자의 출입은 있어도 역시 이에 못지않은 정제된 자구를 구사하고 있다. 「죽루부」는 이와 달리 매우 다양한 자구형식을 보이고 있다. 3자구에서부터 길게는 8자구까지 두루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對句와 字句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나름대로 구조적 규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죽루부」의 이러한 다양한 字句 구사는 산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고, 앞의 두 편이 가지고 있는 고착적인 규칙성보다는 변화와 역동성을 느낄 수 있어 오히려 한층 원숙한 辭賦의 리듬감을 주기도 한다. 사부의 백미라고 불리는 「赤壁賦」에서 볼 수 있는 辭賦의 字句美를 「竹樓賦」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사부의 묘미는 역시 운문, 산문의 조화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押韻의 구사이다. 「東征賦」에서 3개의 缺韻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전편에 걸쳐서 압운을 하고 있고, 「思舊賦」, 「竹樓賦」에서는 완벽

한 압운을 유지하고 있다. 「동정부」는 장편이어서 이러한 경우 가끔 缺韻을 보이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니 이것으로 사부의 형식적 특징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나머지 두 편에서 완벽한 압운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허균은 다른 작가보다 압운이라는 사부의 형식적 요소에 더 충실한 작가였다.

허균의 작품 중에서 임의로 標集한 3편이 사부의 3가지 형식적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사부의 일반적 요건임을 입증하는데 훨씬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사부문학의 판단 기준을 삼아도 좋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면 그 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사부문학의 개념, 본질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사부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내친 김에 여기에서 추출해낸 사부문학의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써 그 동안 허균의 작품이면서 사부문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3편의 작품을 들어 이를 검증해 보겠다.

4. 解命文

不佞生於己巳年丙子月壬申日癸卯時

나는 기사년 병자월 임신일 계묘시에 태어났다.

星命家言申金害木命●

占星家가 말하기를 金이 命運인 木을 해쳐

而身數又空● 厄困貧病●

身數가 空虛하고 厄運이 끼어있고 病弱하여

謨計不成● 賴子水居中●

도모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丙子 水의 덕으로

故年得不促 而東流澄清●

단명은 면할 것이고 깨끗이 살 수 있을 것이다.

才以之汗漫 卯金又響

재주가 넘치고 金의 運勢로

故名播²⁵⁾天下後世

후세에 길이 이름을 날릴 것이다.

余每嘗疑之 及出仕途十七八年來

내 이를 믿지 아니하였더니, 벼슬길에 오른 지 십칠팔 년에

其顛沛寵辱之狀 聞與之合可異焉

좌절과 환희, 득의와 굴욕이 운수와 부합되니 이상한 일이다.

嘗觀韓退之以磨蝎爲身宮●

일찌기 韓愈는 磨蝎星을 身宮으로 삼았고

而子瞻亦以磨蝎爲命宮●

蘇軾 역시 磨蝎을 命宮으로 삼았다.

蝎則卯也 噫余亦卯時生人

蝎은 곧 卯라. 슬프다, 나 역시 卯時生이라.

其文章氣節 因不敢企於二公●

내 문장 기절은 二公을 따를 수 없으나

而其抵讒見忌 不得顯於時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顯達을 얻지 못하여

困斥擯棄之迹

곤경에 빠지고 내침을 받았으니

千載之下 若契之符 吁其怪哉

기묘하게도 들어맞으니 아, 괴이하도다.

遂作解命文以自釋云 文曰

이에 해명문을 지어 내 명운을 풀어본다. 글에 이르기를

我生之世兮金木相攻●

내 운명에 金과 木이 相馳하여

賴水中救兮身數又空●

水德으로 모면하나 身數가 공허하다.

生時且犯兮磨蝎之宮●

生時가 磨蝎의 운수를 잘못 건드렸으니

嗟天賦兮難移

아, 하늘이 준 명운은 바꿀 수 없으니

25) 원문을 의미상 播로 고침.

信我命兮厄窮●

내 운명에 낀 액운을 면할 수 없구나.

金欲攻木兮身常弱羸●

금이 木을 해하니 항상 몸이 허약하고

數之空兮謨事而常不克遂

運數가 空虛하니 일을 도모함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恣口業兮觸人

입을 잘못 열어 구설수에 오르니

亦磨蝸兮爲(未)

이 또한 마갈의 ----

嗟呼天不予兮當艱厄以至死

어허! 무심한 하늘이여, 액운이 모질어 죽을 지경이로다.

夜據枯梧兮涕泣以思²⁶⁾

밤에 낡은 거문고에 기대어 흐느끼며 생각에 잠겼다.

夢一羽人兮暫²⁷⁾而頎長●

꿈에 흰하고 현결차게 생긴 한 신선이 나타나

來入我室兮居我藜床●

내 방에 들어와서 명아주 침상에 걸터앉아

曰君奚怨命兮君壽之孔長●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운명을 원망하는가? 그대의 수명이 길거늘.

謂居勿怨天兮天賦君以文章●

매사에 하늘을 탓하지 말라. 그대에게 文才를 주었거늘

陸多謝麗兮宋艷班香●

陸機와 謝靈運의 화려함, 宋玉과 班固의 富艷을 갖추었으니

綺組煥爛兮笙鏞鏗錚●

文章이 찬란히 빛나고 운율이 뛰어나다.

持此足以高一世 豈軒冕之敢當●

이것만으로도 족히 일세의 으뜸이거늘 어찌 高官大爵에 비기겠는가?

26) “數之空兮”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압운의 여부를 밝힐 수 없다. “亦磨蝸兮”에서 끝자를 관독할 수 없어 압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이곳이 押韻字라면 이곳도 押韻이 성립될 수 있다.

27) 原文에는 暫로 되었으나 의미상 暫으로 고침.

彼峨弁而呵呼 揆其中則糞穢●
 감투 높이 쓰고 호령하나 실상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縱衣彼以斧藻兮興土梗而翼以徒隸●
 비록 화려한 옷을 걸치고 넓은 토지에 수많은 일꾼을 거느려도,
 富貴而磨滅兮亦君之所不愒●
 부귀는 무상한 것이라서 그대가 탐할 바 못되는 것.
 今吾將告眞宰兮亦君之生歲●
 지금 내가 上帝에 고하여 그대의 운명을 바꾸어
 奪君之才兮闡君之慧●
 그대의 재능과 지혜를 거두고
 高其爵位兮厚其寵權●
 높은 관작과 권세를 주어
 爾然與草木而同腐兮君必不願焉●
 草木과 같이 繁滅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원치 않을 것,
 嗟嗟君子兮只任之天●
 어허, 군자는 모름지기 그 명운을 하늘에 맡기는 것,
 固使才而得其寵辱兮
 재주로써 충욕을 다룬다면
 彼瞽史與腐令兮其得乎先●
 충애와 굴욕이 어느 것이 먼저이겠는가?
 唯昌黎之儒老兮與眉山之蘇仙●
 다만 창려의 韓愈와 眉山の 蘇軾이
 時竝丁乎磨蝸兮總高文之播傳●
 마갈의 운수로 후세에 文名을 날렸으니
 蓋二子常怨其命隻兮終不害夫千年●
 두 사람은 그 命運을 원망하였으나 그 文名을 후세에 전하였다.
 朝陽之貶兮武昌之遷●
 조양에 내쫓기고 무창에 좌천된 것은
 適妨元辰兮非命之遭●
 잠깐의 불운일 뿐, 명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今君之名兮肩於二子●
 지금 그대의 이름은 두 사람에 비길 수 있으니

莫怨以咎兮流行坎止●

허물을 원망하지 말고 나아가고 멈춤을 때에 맞추라.

優哉游哉卒歲兮終訪我於丹丘●

그렇게 삶을 마치고 단구로 와서 나를 찾으라.

駕青鸞兮驂赤虬●

청난을 몰고 적규를 타고서

吾與躋兮五城之樓●

나와 함께 오성에 오릅시다.

言訖不見兮我寤以起●

말을 마치자 선인은 홀연히 보이지 않고 잠이 깨었다.

悄然而思兮言猶在耳●

망연히 생각하니 아직도 그 소리 귀에 쟁쟁하다.

信羽人之不我欺兮心愉然而怡怡●

선인의 말이 지당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

從吾皇兮自適其適

하늘의 명운대로 맞추어 살리라.

樂夫天命乎奚疑●

천명을 따를 일이지 어찌 의심을 하랴?

구성면에서 并序가 따로 있고, 표지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의미상 “言訖不見兮”에서부터 結末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3단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字句는 매우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竹樓賦」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보아 사부의 변화 있는 자구 형식미를 발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만큼 사부의 字句형식은 탄력성이 좋다는 말이다. 押韻은 隨時로 하고 있어 비교적 자유로우며, 통상 并序에서는 압운을 하지 않으나 본편에서는 부분적으로 압운이 되어있는데 의도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의 작품에 비해 압운이 풀어져 있는데 이는 隨時押韻-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의 압운-이라 해서 사부문학이 가지고 있는 압운의 한 방식으로 문체 될 것이 없다. 이를 인정한다면 이 작품은 몇

뻗하게 사부로 인정해야 한다. 제목이 ‘-文’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사부로 서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사부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文’의 辭賦 전통은 내력이 깊고, 그 사례가 허다하다.²⁸⁾ 이로써 보건대 「解命文」이 어엿한 사부임이 분명하다.

5. 對詰者

頽而弁者 有詰於吾●	어느 풍채 좋고 갓 쓴 사람이 나를 힐난하기를
君有文章 官上大夫●	그대는 文才있고 高官大爵으로서
峨冠博帶 侍于清都●	높은 관 쓰고 큰 요대 찬 조정의 중신이라.
從者雲擁 呵于通舅●	따르는 자가 구름처럼 많고, 행차 부르는 소리 거리에 드높으니
宜其所交 卿相爲徒●	그 사귀는 마땅히 공경대부와 더불어
偕其追逐 協其訐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혜를 모아 일을 도모하고,
躡取權柄 以豐其廚●	권세를 잡았으니 살림은 넉넉할 것인데
胡爲朝罷 閑兌如愚●	어찌하여 일찌기 조정에서 물러나와 어리석은 듯 한가로우신가?
無顯者來 畸人與俱●	현명한 자 하나 없고,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有黎其面 有赤其須●	얼굴이 검은 사람, 수염이 붉은 사람이 있고,
赤者談舌 黎者提壺●	붉은 수염은 허튼소리나 하고, 감상은 술병이나 차고 있는데
有一短漢 其臭如狐●	키가 작은 사내는 여우 냄새를 풍기고
有眼其眇 有睫其朱●	애꾸눈 하나는 눈썹이 붉고,
日哄其堂 歌呼嗚嗚●	날마다 모여 떠들어대는데 노래도 부르고 소리 지르고 울기도 하며
鏤困萬象 用以自娛●	갖은 작태 지어내며 희희낙락하고 있소.
嫉者如林 群士背趨●	보는 이마다 역겨워하고, 못 선비들이 발길을 돌리고
亘其子身 厄于泥途●	자신에게도 해가 미쳐 곤경에 빠져있는데
盍捨此輩 往締要途●	어찌 이들을 물리쳐서 지난 날로 돌아가지 않소?
余曰否否 子言之迂●	내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소. 그대의 말이 옳지 않소.

28) 文字 사부의 전통은 韓愈의 「送窮文」으로부터 비롯하여 李奎報의 「驅詩魔文」, 金宗直의 「弔義帝文」, 趙繼韓의 「哀鷹文」, 張維의 「謹魃文」 등 허다한 데 이들은 모두 사부의 내용적, 형식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어엿한 사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吾性鄙拙 疏而且麤● 본래 내 성품이 못나고 엉성하고 거칠어서
 無機無巧 不聰不諛● 매사에 재빠르지 못하고 아첨 아부를 못하오.
 有一不協 不忍須臾● 한번 뜻에 맞지 않으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談及旬人 口卽囁嚅● 목소리 높여 論駁하고 비위를 거스른다오.
 足躡權門 其跟卒瘞● 권문에 드나들다 발꿈치가 병들었고,
 軒裳拱揖 如柱在軀● 좋은 옷 입고 공손히 예절 갖추기를 판에 박은 듯이 하고,
 將此情容 去謁公孤● 아첨하는 얼굴로 高官大爵 門前을 들락거리니,
 見者輒憎 欲斲其顛● 보는 이마다 미워하여 나를 죽이려 하니
 不得已焉 思適江湖● 이는 부득이한 것일 뿐으로 강호에나 묻혀
 爲貧爲祿 欲退次且● 가난을 福祿으로 삼고 물러나려 하는 것이오.
 唯二三人 不爲俗拘● 오직 몇 사람들만이 속세에 구애받음 없이
 喜我伎倆 或愛無邪● 나의 재주를 좋아하고, 邪慝이 없음을 알아
 來醉我酒 相招相呼● 와서 술 마시고 취하면서 서로 부르고 대답하여
 有倡斯和 篇篇明珠● 소리 높여 화답하니 편편이 구슬이요,
 火齊木雕 玫瑰珊瑚● 불로 鍛鍊하면 매괴요, 나무로 새기면 단호라.
 自寶我寶 非待其沽● 서로 소중히 보배로 여기어 글을 짓는 대로
 風頌爲伍 命騷僕奴● 다투어 읊조리고 하인에게도 부르게 한다오.
 詫爲大業 隘視寰區● 이를 삶의 대업으로 삼으니 속세가 뭐라거나 말거나
 謂任無詭 範我以驅● 사환의 길은 정도를 밟는 것, 나를 지켜 몸으로 실천하는 것.
 從天所賦 以至桑榆● 하늘의 命運을 따르는 것이 養生의 지름길인 것을.
 此交不沮 石耶金乎● 속된 교제는 財利만을 따지고
 當其得意 欣欣愉愉● 그것으로 만족하여 기뻐 날뛰니
 不知有我 忘寢及饋● 자아를 잃어버리고 잠마저 설치며 재물을 탐하니
 而況軒輅²⁹⁾ 視若有無● 더구나 高官大爵은 안중에도 없소.
 彼富貴者 紫拖青紆● 저 부귀한 자들의 화려한 치장과
 長裾佩玉 只悅婦姑● 긴 옷자락에 달린 패물들은 부녀자들이나 기쁘게 해 줄 뿐.
 此沈冥者 唯樂是面● 이에 眩惑되는 자는 오로지 걸만을 탐하는 것이니
 不耽聲色 不懷嚴誅● 外物에 빠지지 않으면 患難도 없을 것이오.
 曰陶曰謝 曰李曰蘇● 陶淵明, 謝靈運, 李白, 蘇軾을 좋아하는 뜻은
 唯冀其齊 冥卽榮枯● 오로지 그들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니 榮枯를 슬퍼할 일이 아니오

29) 原文은 貂로 되어있으나 의미상 輅로 고침.

衆嗜爲患 衆尊爲汚●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남들이 높이는 것을 더럽게 여기니
 人曰病風 我喜呼盧●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오
 亘其我身 每陷重辜● 그것들이 내 몸에 미쳐서는 매양 큰 허물에 빠지게 되니
 如絕斯交 身寧伏鈇● 차라리 이 교제를 끊으면 몸의 편안과 爵祿이 있을 것을.
 世情閃歎 世路崎嶇● 세상 인심은 무상하고 세상살이 기구하여
 分析毫末 利害鎡銖● 털끝까지 헤아려 이해를 따지니
 我之齟齬 難以誠孚● 내 삶의 회의로 방향을 면하기 어렵소.
 子言雖是 不察其驚● 선생의 말이 옳기는 하나 나의 노둔함을 살피지 않은 것이니
 雖其愛人 非以德夫● 나를 아껴주는 뜻은 고마우나 덕으로 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오

詰者曰唯 我誠模糊● 힐자가 시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어두웠소.
 聞子之論 若見大巫●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서 크게 깨달았소.
 子交則善 子言非巫● 선생의 교제론이 옳은 것이요, 선생의 말씀이 모두 이치에 맞소
 吾失吾言 眞小人儒●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으니 참으로 나는 속 좁은 腐儒였소
 言訖而退 其去于于● 말을 마치고 휘적휘적 물러나갔다.

4言으로 일관하고 있고 繼續押韻을 하고 있어 整齊性을 유지하고 있다. 同一句로 일관하는 경우를 「東征賦」에서 보았듯이 다소 경직된 사부의 句型에 속한다. 구조는 시종일관 대화체로 되어있는데 詰者의 질문이 序가 될 것이고, 작자의 대답이 本文, 詰者의 사죄가 結이니 3단구성으로 보아도 좋다. 다만 대화체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은 형식상 敘事나 劇의 장르적 성격이 강하여 사부의 장르인 교술에 배치된다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사부 자신이 본래 대화체 형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이 모두 사부로서 부족함이 없으니 이 작품이 사부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대화체로 되어있지만 그것은 작자의 수사적 수단일 뿐이지 그 속에 서정, 서사 양면성이 충분히 개재되어있고, 형식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東征賦」나 「譴加林神」이 동일하다. 압운은 철저히 하고 있어 사부의 형식을 다하고 있다.

6. 遣加林神

咸山之顛 有祠翼然●	함산마루에는 커다란 사당이 있다.
謂之城隍 民祀式虔●	성황당이라 하는데 백성들이 경건하게 재를 올리는 곳이다.
居忽一日 霧埃翳天●	하루는 갑자기 안개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霾以土雨 長飈歔煽●	폭풍우와 흙비가 세차게 뿌리는데
掀林簸雨 吹神像顛●	나무가 뒹히고 짐이 흔들리고 神像을 넘어뜨렸다.
翌旦巫來 整其神筵●	이튿날 무당이 와서 신단을 정돈하고
理髮飾衣 風又吹旋●	머리를 가다듬고 옷매무새를 바로 하는데 다시 바람이 불어대었다.
如是者三 余甚怪焉●	이러기를 세 차례 소동하여 내 괴이히 여겨
問巫何故 巫拜以言●	그 까닭을 물으니 무당이 절하며 이르기를
威神爲夫 林神爲婦●	威神이 남편이고 林神은 아내인데
威溺其媵 謂婦孔醜●	위신이 첩에 빠져 아내를 추하다 하여
婦怒其媵 來輒踐蹂●	아내가 노하여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從之風雨 以澆以德 *	바람과 비를 몰고 와 질풍으로 비를 뿌려
裂夫之衫 夷媵之首●	남편의 옷을 찢고 첩을 응징한 것입니다.
去而旋來 儵夜而晝●	이리저리 심술부리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으니
巫靈不靈 力難解鬪●	저의 신통력이 부족하여 그 싸움을 말릴 수 없어
只改冠裳 藻其土偶●	다만 차림새를 바로하고 신상을 다시 정돈하는 것입니다.
余曰嗟唏 神敢獅吼●	내가 말하기를 어허! 잡신이 감히 소란을 피우다니.
吾列神愆 詛之北斗●	내 이것들의 죄과를 따지며 북두에 꾸짖으며
燒香焚辭 庭下以俛●	향을 사르고 글을 지어 뜰 아래에 엎드렸다.
曰我后皇 分土劃州●	이르기를 나는 地神으로 땅을 나누어 劃定하고
各有主神 俾民蔭庥●	각기 主神을 정하여 백성들을 돌보게 하였다.
暘若雨若 以利其穰●	햇빛과 비로써 농사를 돌보도록 하였고
苟失其職 天必降尤●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하늘은 반드시 재앙을 내려
戮杜伐廟 爲神之羞●	그 사당과 묘를 징벌하리니 신들의 수치가 되리라.
今茲二神 夫婦好仇●	지금 이 두 신은 부부가 원수 되어
限一衣帶 裂地以候●	한 통속이면서 땅을 쪼개어
苾祀相望 享之千秋●	香火를 서로 나누며 千秋까지 歆饗하여

宜降福祐 以豐其疇● 마땅히 복을 내려 농사가 풍년들게 하고
 風順雨調 黎苗油油● 풍우를 순조롭게 하여 곡식을 기름지게 해야 하거늘
 胡爭姬寵 怒閃其眸● 어찌 계집의 사랑을 다투어 사악한 눈 번득이며
 乘以豐隆 持其電矛●雷神을 몰아 날카로운 벽력의 창을 들고
 揚霧躡颯 來艾神幟● 안개를 일으키고 바람을 몰아 산가지를 놀려
 擘斲其腰³⁰⁾ 仍毀神旒● 그 첩을 베고 神旗를 찢어버리는가?
 大噉跳擲 威壓恣獸● 소리 지르고, 날뛰고, 내던지고, 횡포를 마음대로 하며
 狺狺闕睚 指好爲讐● 으르렁거리며 노려보고, 배필을 원수라 한다.
 因沴以臻 害牧害菑● 요기로 소란 떨어 가축과 목초를 망치고,
 害于我稼 爲民之憂● 내 살림을 망치고, 백성의 근심이 된다.
 一之爲甚 三五不缺) 한 번도 심하거늘 여러 차례에 걸쳐 그치지 않으니
 惟皇孔昭 鑒其作孽● 오직 后皇의 밝음으로 그 사악을 살펴
 聲罪以討 命我喉舌● 그 죄를 성토하여 나에게 명하여
 詔諸雷師 飛捷月學³¹⁾ 못 雷神들을 부르고 (未詳)
 轟霆燦電 駕馭軀躡 * 친둥 번개를 모으고 구름과 태풍을 몰아
 八威猛馬 流鈴金鉞● 사나운 말을 타고 방울과 도끼를 휘두르며
 下盪其巢 鬼爽屠割● 그 소굴을 소탕하고, 잡귀들을 도륙하고,
 其曠劓劓 其頸顛劫● 그 눈을 도려내고, 그 목을 모조리 쳐내어
 錄魂矢延 以警其振● 귀신들을 늘어놓아 一罰百戒로 삼으리라.
 俾民免災 無蹙其頰● 백성들이 재앙을 면하고, 몸 다치는 일이 없으며
 稔黍穰穰 各室于安● 오곡이 넉넉히 집집마다 들어차게 하소서.
 言訖再拜 埃命以跪● 기원을 마치고 재배하고 무릎 꿇고 기다리니
 俄有介幘 絳袍朱履● 이윽고 두건을 두르고 붉은 옷, 붉은 신 신고
 導以靈幡 來提我耳● 신비한 깃발을 들고 내 귀에 대고 말하기를
 曰巫之誣 非神之戾● 무당의 헛소리는 신의 뜻이 아니라.
 嘉林非女 亦惟男子● 가림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일 뿐이고
 以神攻(缺) 安有此理● 신을 부린다니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風霧之災 惟民所致● 바람 안개의 재앙은 원래 백성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民之暴殄 崇覲淫祀● 백성은 무도하고, 박수의 굿만 숭상하고

30) 原文에는 腰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腰의 오기로 판단되어 고침.

31) 學은 誤字가 아닐까 한다. 의미도 통하지 않거니와 압운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不敬以慢 唯藝是事●	공경치 않고 방자하고, 오로지 무속에만 빠져서
不忠不孝 不信不義●	불충불효하고 불신불의하며
姦射駟儉 機巧仰利●	간교한 장사꾼은 영리만 쟁기고
來佩符者 亦罕循吏●	관권을 남용할 뿐, 정직한 관리는 드물고
陰饜陽餽 詰詞掠美●	게걸스럽게 먹을 것이나 밝히고, 악담 모함으로 良俗을 해치고
誕謾更脅 惟矯無恥●	황당한 소리로 위협하고, 교만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教化不施 上下相詭●	교화를 베풀지 못하고, 상하가 화목하지 못한다.
以此事神 神宜怒爾●	이렇게 신을 섬기니 신이 노할 것은 당연한 일.
降沴降災 皆職由此●	惡氣와 재앙이 내리는 것은 모두 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不思其咎 反加嫚戲●	그 허물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방자를 더하고
謂妬勃蹶 傳言無忌●	남을 질투하고, 모함 과장하여 헛소문을 퍼뜨리니
神益齋怒 災益疊至●	신은 더욱 진노하고, 재앙은 더욱 크게 된다.
雷罰之行 唯巫是視●	하늘의 징벌이 저것들에 내려짐이라.
大夫之明 其亦惑是●	대부의 현명도 의혹됨이 있는데
矧世愚者 其眩固易●	하물며 세상의 어리석은 자 현혹되기 십상이다.
余拜稽首 以謝不智●	내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어리석음을 사죄드리고
舉頭以望 神已焱舉●	머리 들어 바라보니 신은 이미 불꽃을 날리며
仰睇長容 不見其處●	커다란 그 모습은 長空에 높이 올라 간 곳을 모르겠더라.

본편은 序와 結의 標識는 없지만 의미상 ‘余曰’ 이전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序요, “余拜稽首” 이하가 마무리 짓는 결말이어서 구성상 3단구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 작품도 「對話者」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부임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4字句式으로 일관하고 있고, 換韻으로 繼續押韻을 하고 있어 辭賦의 형식적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이 세 편은 비록 제목에 ‘辭’, ‘賦’라는 글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사부의 일반적인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마땅히 사부문학으로 간주하고 연구해야 옳다. 對話體의 형식은 사부가 가지고 있는 한 형식적 典型이다.

Ⅲ. 結論

江原道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어찌 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許筠이라는 걸출한 문인과, 辭賦라는 한정된 갈래로 생각하다 보니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잡아낼 수 있었다. 특히 여기에 인용된 세 작품은 江原道 일대가 작품의 무대가 되어 선명하고 실증적인 지역문학으로서 그 대표성을 부여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임의로 선택된 許筠의 辭賦 3편을 통하여 사부의 일반적인 형식적 틀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3편을 가지고 사부 전체의 형식적 요건을 귀납하기에는 부족하겠으나 무작위로 표집된 대상에서 일반성을 추출해냈다면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뽑아낸 序-本-結의 삼단구성, 일정한 字句의 구사, 엄정한 押韻의 적용이라는 일관된 사부의 틀은 다른 辭賦작품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 辭賦의 典型으로 세우는 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형식적 요건으로만 辭賦임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 요건보다는 그 입증력이 크다고 믿기 때문에 이에 주력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거론된 작품들이 내용적으로 모두 서정, 서사의 양면성을 갖추었으므로 사부의 내용적 요건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이에 관한 문제는 論外로 하였다.

표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겠지만 그 동안 사부로 여겨지지 않았던 또 다른 許筠의 작품 「解命文」 「對詰者」 「遣加林神」 3편을 들어 여기에서 귀납된 사부의 형식적 요건으로 그것이 어김없는 사부문학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사부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사부의 장르적 위상은 漢文學의 韻文, 散文문학에

대응되는 제3의 장르에 해당한다.³²⁾ 그만큼 사부의 漢文學의 위상은 크다. 이러한 위상을 갖는 사부문학이 아직 연구의 토대마저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부의 형식적 요건은 필자 나름대로 구안해 본 것이어서 일정한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바라건대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계의 衆智를 모은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작품들은 이미 국역이 되었으므로 여기에 逐字翻譯을 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문학적 정서를 살리기 위해 意譯을 시도했는데 원문에 손상이 갔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原文에 缺字와 判讀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용된 작품의 원문에 誤綴로 보이는 글자가 적지 않아 필자의 견해대로 고쳤는데 혹시 망발이었다면 질책 있기를 바란다.

32) 辭賦를 중앙장르의 틀에 적용한다면 抒情, 敘事, 劇에 이은 敎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辭賦는 서정적 태도와 서사적 태도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도 포함시킬 수 없으니 독립시킬 수밖에 없다. 漢文學 장르체계로 말하면 韻文과 散文을 겸비했기 때문에 역시 독립시킬 수밖에 없다. 그 장르적 성격이나 한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韻文, 散文에 相應하는 ‘제3의 장르’ 위상을 부여해야 옳다.

<參考 文獻>

- 許筠, 『惺所覆瓿稿』, 『韓國文集叢刊』 74, 한국고전번역원.
- 金錫胄, 『海東辭賦』, 影印本.
-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민족문화추진회.
『莊子』
- 楊家駱 編, 『七十家賦抄』, 臺灣 世界書局, 1964.
- 金星洙, 「鄭澈 「關東別曲」 과 許筠 東征賦를 통해 본 歌辭와 辭賦의 因緣關係 考察」, 『熊津語文學』 4집, 熊津語文學會, 1996.
- , 「許筠의 辭賦文學」, 『인문과학연구』 13집, 공주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8.
- , 『辭賦文學 研究』,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7.

Abstract

Stylistic requirements for Sa-Bu based on Heo Gyun's works written in Gangwon-do
- focusing on the 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Dongjeong-Bu, Sagu-Bu and Jukru-Bu
*/ Kim Seong Su**

Even though he didn't leave lots of works, Heo Gyun is the best Sa-Bu writer in terms of quality. It is a significantly meaningful fact to Gangwon-do that 3 pieces among his 14 works were written in Gangwon-do. It could be impractical to figure out stylistic requirements for Sa-Bu based on the study of his 3 work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revealing the core characteristics of Sa-Bu from the study of the randomly selected 3 works actually increases the credibility of the research. This study showed that each work fully satisfies all of the stylistic requirements such as the 3-part formation, diverse letters and phrases and the use of rhyme. It can be claimed that the three stylistic requirements established in this research are sound enough to be considered the general criteria for defining what Sa-Bu is. This research has some value since those kinds of criteria have not been established until now. In order to confirm the validity,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at Heo Gyun's 3 works, which have not been categorized as Sa-Bu, are actually classified as Sa-Bu works. It has to be mentioned that since this study focuses more on establishing the stylistic requirements, the investigation on the quality of Heo Gyun's works is somewhat neglected.

【Key words】 Heo Gyun's Sa-Bu, Stylistic requirements for Sa-Bu, 3-part formation, letters and phrases, use of rhyme

투고일 : 5월 4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 / kimss@kongju.ac.kr